

보도자료

2011년 11월 18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위규진과장(☎710-6500)
전파환경안전과 류충상 연구관(☎710-6540) chsryu@kcc.go.kr

서울에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새로운 전기 만든다

- 국립전파연구원,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11.11.21~22일간 서울 국도호텔에서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회의 (2011 Global Coordination of Research on Electro-magnetic fields and Health; GLORE-11)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전자파 인체보호 연구와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GLORE는 한국,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 국가들까지 참가하여 각국의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추진 현황을 상호 점검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연구과제 추진 협력과 각 국의 정책 방향을 공동 인식하는 장이 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GLORE-11은 지난 5월 WHO 국제 암 연구소가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가능 인자로 분류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경각심이 새로워진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향후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가 기존의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및 일반인에 대한 단기적인 전자파 영향 연구를 넘어서 아동, 청소년 등 취약그룹에 대한 장기간의 기전(Mechanism) 연구와 역학(epidemiology) 연구로 전환될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행사에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전자파학회 전자기장 생체관계연구회(위원장 김남 충북대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전자파기술원 등이 참가하여 대학 및 각 기관에서 추진된 연구현황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행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백정기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19일 발표한 전자파종합대책과 지난 11월 15일 공청회를 가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대상기기 정책이 각 국의 정책 방향과 더불어 상호 검토되어 보다 실질적이고 조화로운 추진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